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목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1월호를 남풀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 송구영신 예배 : 12/31(수) 오후 11시
2026년 올해의 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후에 준비된 기도함에 넣어주시고 목사님 축복기도 후 2026년도 신년말씀 카드를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 월식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3. 2026년 애찬 변동사항 안내 : 1부 애찬은 커피와 다크로 하고 2부 애찬은 예년과 같습니다

• 목회자 사임

김학섭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지로 옮겨 가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로 은퇴 친하

은퇴 : 김일희 장로, 정철조 장로, 유영재 장로
* 2부 예배 시간에 기념패 전달이 있습니다.

• 임원회 안내

일시 : 오늘 12/28(주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대예배실

참석대상 :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

•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일시 : 1월 12일(월) ~ 16일(금)

주제 : “내 삶을 채우소서”

*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윤성민 전도사

• 교회 창립 기념 신년 부흥성회

일시 : 2026년 1월 16일(금) ~ 18일(주일)

주제 : “예수로 채우라. 은혜로 채우라”

강사 : 곽주환 목사 (한국 베다니감리교회 담임)

• 부흥회 태신자 (VIP) 작성 카드 작성 및 제출 안내

태신자 작성카드는 개인 보관용과 교회 제출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태신자 작성카드 교회 제출용은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금함에 넣어주시고, 개인 보관용은 성경책 앞에 부착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 2026년 목장모임 안내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 문의 : 윤경순 권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목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권태홍 목사
- EM-다문화, Youth/ 김학섭 목사
- 유아유치부. 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 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현금 통계 : 총 합계 \$30,755.80

일반현금 \$21,901.00	십일조: \$5,340.00 주 정: \$1,981.00	감사. 성탄: \$10,595.00 기 타: \$3,985.00
건축현금 \$8,574.80	약 정 \$8,574.80	
선교현금 \$280.00	속 회: \$280.00	

** 온라인 현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4권 52호

2025년 12월 28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2025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풀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성탄후 첫째주일/ 송년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찬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시도신경

찬송 Hymn / 428장(통488)

내 영혼에 헛빛 비치니

기도 Prayer / 김창립 장로

찬양 Choir / 호신나 찬양대

- 주 찬양해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성봉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고후(2Cor) 8:23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믿음의 동역자 >

Co-worker of Faith

▲ 파송찬송 Closing Hymn/ 우릴 사용 하소서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5년 12월/2026년 1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2월 28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김창립장로	믿음교구
	2부			김창립장로	
다음주 1월 4일	1부	#1 목장	담당자	정철조장로	#8 목장
	2부			윤기향장로	

금주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고후(2Cor) 8:23

<설교 요약>

힐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믿음의 동역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1차, 2차, 3차, 로마 방문, 4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나바 등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들과 영적 동료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여러 교회의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디도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삶과 마음, 눈물과 기쁨을 나누는 영적 동료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바울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귀를 기울이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필요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동역자라 부릅니다.

동역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역과 역할이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까지도 한 은혜 안에서 함께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우리도 한 성령, 한 은혜, 한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단순히 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슬픔, 눈물과 감사, 고민과 기도를 함께하며 서로의 영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

<설교 요약>

그는 바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하며 교회의 평화와 사랑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동역자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동참하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울고, 서로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역시 서로의 삶 속에서 영적 동료가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믿음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서로의 삶 속에서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와 축복 속에서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 나눔 질문

1. 2025년 올 한 해를 지내으며 내 삶에 가장 감사한 것 3가지를 나눠봅시다.
2. 바울에게 디도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삶과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였습니다.
나의 삶에도 이런 영적 동료가 있었나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 적이 있나요?
3.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떤 모습의 동역자로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이번 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금주 예찬 섬김

	금주 (12월 28일)		다음주 (1월 4일)
김학웅, 김정희권사		Jason P 박경숙집사	
범사감사		Liam 생일, 범사감사	
믿음교구		#8 목장	